

# 수영복 물안경 튜브



· 물과 가까운 계절, 여름이 왔다. 바닷가와 수영장으로  
· 놀러 갈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  
· 바로 물놀이 용품 쇼핑.  
· 요즘은 과감한 디자인과 유행을 반영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  
·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면만 생각하다가  
·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 소비자들이 놓치기 쉬운 수영복 · 물안경 · 튜브의  
· 구매 포인트를 짚어본다.

- 글/임은정(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국)
- 도움말/김남윤(현대백화점 아동스포츠팀 과장)
- 제품 협조/레노마·마리골레르·아레나·베스트커드

## 수영복

### ▶ 정상품과 기획상품, 어떤 차이가 있나?

다양하고 섬세한 디자인으로 소량 생산하는 정상품에 비해 기획상품은 소품종을 다량 생산하는 것으로 무난하고 기본적인 스타일의 제품이 많다. 기획상품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다.

기획상품이라고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정상품은 염색이 잘 되게 하고 탄성을 높이기 위해 얇은 원단을 사용하지만 기획상품은 이보다 두껍고 튼튼한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더 뛰어난 경우도 있다.

기획 행사에서도 잘 선택하기만 하면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 ▶ 까다로운 치수 재기, 어떻게 할까?

수영복은 입어보고 구입하기 힘든 제품이라 치수 고르기가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요즘은 직접 매장에서 입어보고 고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물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영복은 자신에게 꼭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약간 조이고 달라 붙는다는 느낌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재 특성상 물에 들어가면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넉넉한 사이

## 수영복 오래 입는 핑크 관리법

- 수영을 한 후 깨끗한 물에 헹구낸 다음 집에 돌아와서 세제를 사용해서 다시 제대로 댄다. 바로 빨지 않으면 변색되거나 옷감이 상한다.
- 선댄 오일을 바를 때 수영복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댄 오일만 인해서 수영복의 고무줄이 늘어 붙는 경우가 있다.
- 수영장의 미끄럼틀을 탈 때는 면바지 등을 입고 타는 것이 좋다. 미끄럼틀과의 마찰열 때문에 구멍이 나기 쉽다.
- 단독 세탁하고 되도록이면 손빨래를 한다. 다른 옷과 함께 댄면 서로 색이 섞이게 된다. 변색을 막기 위해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즈를 고르면 수영복이 축 쳐져 버릴 수도 있다.

수영복에 표시된 치수는 여자의 경우 가슴둘레와 엉덩이 둘레, 남자의 경우는 엉덩이 둘레이다. 이 치수는 속옷의 사이즈와 비슷하므로 자신의 속옷 사이즈를 기억해두면 비교적 정확한 사이즈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 ▶ 변색이 덜 되는 수영복을 고르려면?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물에 들어가 있는 속옷 때문에 색이 쉽게 변한다.

특히 화려한 프린트의 수영복은 색과 무늬가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변색이 되면 금방 못입게 된다.

수영 강습을 받는 등 실내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수영복의 원단이 속옷약에 잘 견디는 항염소성 인지 확인하고 사야 한다.

원단에 따라 잘 바래기도 하고 물이 빠지기 쉬운 색상도 있다. 일년에 한두번 잠깐 입는 것이라면 디자인과 색상이 우선이겠지만 자주 수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영복의 취급주의 사항을 잘 살펴보고 관리가 까다롭지 않은 것을 골라야 오래 입을 수 있다.

### ▶ 인준 유행! 흰색·파스텔 컬러 수영복, 어떻게 고를까?



흰색이나 파스텔 컬러같은 밝은 색상의 수영복은 몸이 드러나고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감이 잘 대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브라와 팬티 부위는 이중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좋다.

밝은 색 수영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관과 취급이다. 변색되기 쉽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자동차 뒷유리쪽에 두는 것은 금물. 세탁할 때도 다른 옷과 함께 빨면 다른 옷감의 색이 옮겨와 얼룩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따로 빨아주어야 한다.

연한 색상의 수영복은 옷에 모래가 박힐 수 있으므로 해변에서는 입지 않는 것이 좋다. 정 입게 되었다면 모래밭에 앉을 때 수건을 깔고 앉아야 옷이 상하지 않는다.



↑수영복의 안감 처리도 구입시 유의해야 할 부분. 몸판 전체에 안감을 댄 수영복(오른쪽)은 가슴 패드가 고정돼 안정감이 있고 모양이 잘 잡히는 반면, 가슴 부위에만 안감이 들어간 것(왼쪽)은 패드가 움직여서 입을 때 불편하다. 아예 안감을 대지 않은 제품도 있으므로 잘 살펴 본다.



←흰색 수영복은 물에 젖으면 몸이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브라와 팬티 부위가 이중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안감은 대어져 있는지 살펴 봐야 한다. 이 제품은 팬티 부위가 세겹으로 처리되어 있어 비치지 않는다.

### ▶ 이런 것도 있어요!

실내 수영장의 약품 등 오염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팬티 부위에 항균 원단을 댄 제품이 나와 있다.

남자 수영복의 경우 트렁크 스타일로 된 면+폴리 재질의 수영복이 나와있는데 반바지 대용으로 입을 수 있고 착용감이 편하기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적당하다.



←팬티 부위에 항균 원단을 댄 제품. 실내 수영장을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수영복 메이커에서는 항균 원단 처리를 하고 있다.

# 물안경

## ▶ 김서림이 없는 물안경은 없을까?

김서림 방지 물안경을 샀지만 곧 김서림 증상이 나타나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일단 사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물안경은 물에 담궜다가 뺀 다음 물기를 털어내고 착용해야 김이 서리지 않는다.

또 김이 서린다고 해서 손으로 물안경 안쪽을 문지르는 것도 금물이다. 이렇게 하면 김서림을 막기 위해 발라놓은 약품이 닳아 나가게 된다.

사용하면서 점차 약품이 물에 씻겨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김서림 방지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럴 때는 김서림 방지 약품을 뿌려서 사용한다.



## ▶ 내 눈에 꼭 맞는 도수 있는 물안경을 사고 싶다!

눈이 나쁜 사람은 물안경도 도수가 들어간 것을 고르게 된다. 도수 있는 물안경은 대부분 수입품으로 일반 시력 검사 측정 단위와 제품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시력에 근접한 제품 2~3개를 직접 써보고 가장 잘 보이는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비교적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는 편이지만 안경점에서처럼 자기 눈에 꼭 맞는 물건을 찾기는 힘들다.

도수 있는 안경은 근시용이다. 난시가 있거나 근시·난시가 겹쳐 있는 사람은 쓰기 어렵다.

## ▶ 물이 스며들지 않는 제품을 고르려면

안경과 얼굴이 맞닿는 부위가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무와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 쉽게 물이 들어오고 안경과 접촉된 부분이 잘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고무는 얼굴과 안경 사이를 단단히 밀착시켜 준다.



오랜 기간 쓰다보면 끈이 끊어지거나 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구입한 장소에 가져가 A/S를 요청하면 수리가 가능하다.

# 튜브

## ▶ 잘 찢어지지 않는 튜브는 없을까?

튜브는 비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에 찢리면 금방 못 쓰게 된다. 요즘은 이런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 나와 있는데 면과 고무를 합한 재질로 코팅한 튜브, 안에 바람이 들어가고 겉에도 한번 더 바람이 들어가는 이중 처리 튜브 등이 있다.

튜브의 비닐 접합면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입하기 전에 가장자리를 손으로 쓸어 보아 마감 처리가 잘 된 것을 골라야 한다.

튜브에 바람을 넣는 것도 힘든 일이다. 침대·보트 튜브 같은 것은 더욱 그렇다. 이럴 때는 바람 넣는 기구를 쓰면 편리하다. 손으로

하는 것과 발로 하는 것이 있는데 큰 튜브는 발로 밟는 기구를 사용하면 된다.●



↑ 위로 불기 힘든 커다란 튜브는 손으로 바람을 넣는 기구를 이용한다.  
→ 한 쪽이 펌크가 나도 다른 한 쪽에는 바람이 빠지지 않아 극한 상황을 면하게 해주는 이중 처리 튜브.